

## 日本語 關聯學科 教科課程의 改善

李 相 滌  
(慶尙大 日語日文學科 副教授)

### 1. 序 言

英語教育에 적지 않게 授業時間을 割愛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第2外國語가 大入豫試에 必須科目으로 加해진다면 學生들의 負擔은 相對적으로 크게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國際社會的 興件을 勘案할 때 이 負擔은 마다할 수 없을 것이며 長期的 限目으로 볼 때 民族繁榮을 위한 基本的인 布石의 意義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能力이나 意志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고 보던 이 點도 第2外國語教育에 있어서는 看過할 수 없는 變數로서 미리 豫想해 뒤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第2外國語, 특히 日本語 및 日本文學教育을 위한 專攻課程을 갖고 있는 大學에 있어서의 教科課程에 꼭 考慮되어야 할 重要事項들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日本語를 高等學校 外國語 選擇科目으로 採擇할 수 있게 된 지도 이미 10年을 훨씬 지났다(1973년 2월 14일 文敎部令 第310號).

以前엔 韓國外國語大學에 日本語科가 있었고,

國際大學에 日語日文學科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設置動機도 日本語나 日本文學에 대한 本格的 研究에 있기보다는 日本語의 切實한 實用性을 커버하기 위해 實用日語의 習得이란 消極的인 範圍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의 해당 대학 教科課程을 一瞥할 때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에 日語教育이 高等學校 課程에서 許容되자, 그야말로 아무런 準備段階도 없이 各大學에서 日本語科 新設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結果적으로 韓國外大의 日本語科 教科課程이 母胎役割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教科課程이 오늘날도 거의 큰 修正 없이 各大學에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같은 現象은 佛語나 獨逸語分野에서도 마찬가지로 英語教科案이 基本이 되었으리라 推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高等教育機關에서 그 教科課程을 作成할 때 이와 같은 安易한 方法이 容納될 것인가?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語도 물론 「他外國語와 마찬가지로, 英語나 佛語를 教授해 온 經驗에 準하면 될 것이라는 一般論도 나올 법 하지만, 아무래도 日本語만은 당분간 「特殊外國語」로 남게 될 것 같다.

## II. 「特殊外國語」로서의 日本語

1973年 日本語가 高等學校에서 選擇科目으로 加해졌을 때 나타난 반응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贊成論〉

- 1) 文化의 흐름은 自然現象이다. 그러므로 人爲的으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 2) 高校에서 이미 獨逸語, 佛語를 가르치고 있고, 多元化해 가는 國際社會의 趨勢에서 볼 때 日本語만을 除外한다는 것은 一種의 콤플렉스이다.
- 3) 日本의 世界的 經濟進出에 關心을 갖고 이것을 警戒한다는 뜻에서도 日本을 안다는 것은 不可缺少 國民的 關心이고, 그 手段으로서의 日本語 學習은 필요하다.

### 〈否定論〉

- 1) 사실 한동안 被治者의 立場에 있었던 國民 感情上的 콤플렉스는 지금도 크다. 더구나 歷史적으로 倭寇에 시달려 왔던 民族感情을 掘索할 때 反對하는 見解는 오히려 當然한 反應이 아니겠는가.
- 2) 人格形成期에 있는 未熟한 高校生에게 日本語를 가르친다는 것은 時期尚早이다.<sup>1)</sup>

兩論 중 어느 것을 듣고 보아도 그 趣旨의 裏面에는 日本語를 單純한 外國語로 看做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否定論의 2)의 句節을 英語나 佛語에 適用했을 때 上記「特殊外國語」論의 뜻이 더욱 浮刻될 것이다. 概括할 때 經濟的 利害關係로 혹은 콤플렉스의 露出이 起면적어서, 매우긴 배워야 하나 感情的 拒否反應을 어쩔할 수 없고 또 자칫하면 多感多情한 高校生에게 어떤 惡影響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憂慮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편 文教部에서 밝히고 있는 日語教育目標을 추려 보면,

가) 日語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基礎能力 培養

나) 日本 文化의 理解와 國際的 協調心의 昂揚, 우리 發展에 貢獻

다) 日本語를 통한 우리 文化紹介<sup>2)</sup>로 되어 있다.

이것은 人文系 高校의 指導目標이긴 하나 自然系 高校도 이와 大同小異하며, 결국 英語나 佛語의 그것과도 表現上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內容은 類似한 것이다.

## III. 日語 教科課程의 改善方向

우리가 外國語를 教育하는 一般的 目標은 이미 文教部의 教育目標에 나타나 있다. 表現은 다르나 歸結되는 目標은 우리들의 國家利益에 있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日本語教育을 위한 教科課程 作成에 있어서도 이 點을 最優先으로 考慮하여 모든 恒數와 變數를 抽出해 놓고 同教科課程案의 作成에 着手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와 日本은 200여 마일 남짓한 海峽으로 國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不可變의 첫째 恒數이다. 이와 같은 自然的인 條件은 우리와 中國, 혹은 우리와 美國과의 關係에서는 볼 수 없는 判異한 問題들을 계속 惹起시키고 있다. 歷史적으로 되돌아 볼 때 이 地政學的 要因이 兩國關係에 여러 가지로 作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마일의 海峽이란 要因이 물고 온 順機能과 逆機能을 여기서 모두 말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 事實만은 日本關係 教育을 위한 基本的인 恒數로서 計上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말과 日本語가 같은 알타이系 言語인 膠着語이고 語順이 거의 同一하다는 것이 또한 重要的 恒數라 할 수 있다. 이 言語上에 있어서의 類似性은 發想에 있어서도 類似性을 가져오게 되며 게다가 漢字文化圈이란 共通底邊은 더욱더 이 傾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셋째, 兩民族이 서로 겪어 온 歷史的 事件들, 이를테면 古代大和文化에 대한 半島文化의 貢獻, 相互人物交流, 壬辰亂, 植民統治 등도 이제와는 抹殺도 忘却도 할 수 없는 恒數로서 計上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가 日本語나 日本關係教育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도 主要變數로 抽出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German 文化에서 期待하는 것 혹은 프랑스文化에서 期待하는 것은 內容上 相異點이 클 것이다. 우리가 아랍語를 敎育하는 目的과, 中國語를 敎育하는 目的이 同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 해당 外國語가 高等學校課程에 導入되는 경우는 그 目的分析이 正確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第2外國語는 許容되는 授業時間이 아주 짧고, 適當 기껏 2시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日本의 出版事業의 現況을 勘案할 필요가 있다(表 1 參照). 특히 日本의 翻譯業紙를 一瞥할 때 더욱더 이 項目의 重要性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絶對的 入超事實은 現時點에서 日語解得의 既成世代가 많다는 것이 큰 原因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事實은 日語敎育에 있어서 重要變數로 計上해야 할 要因이다.

〈表 1〉 1980年 日本出版物 輸出入額 統計表  
(單位 1,000圓)

內譯 國名	輸 出		輸 入	
	書 籍	雜 誌	書 籍	雜 誌
韓 國	1,053,881	573,192	224,410	9,165
北 韓	74,327	57,850		
中 共	578,977	286,698	142,564	60,106
臺 灣	508,783	223,701	370,842	101
香 港	170,484	85,602	370,005	45,100
싱 가 폴	413,730	140,632	84,860	2,269
印 度	267,990	1,318	38,514	
英 國	1,064,564	36,734	5,094,332	1,462,373
독일(西)	664,462	28,494	3,514,330	1,220,483
佛 蘭 西	291,730	5,293	1,372,113	603,810
미  국	5,298,385	465,598	9,270,772	5,144,056

上記表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暗示를 얻을 수 있다. 즉 東南亞圈에 있어서는 아직도 日本 書籍이 해당 地域 知識人들의 知識源의 主要部分을 占據하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對歐美關係에 있어서는 日本쪽이 絶對的으로 入超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서 日本이 歐美諸國보다 모든 分野에서 落後되어 있다고만 速斷해서는 안 될 것이다. 明治維新 이후의 外國 文物에 대

한 攝取意慾을 볼 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歐美書籍의 積極的인 輸入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성한 翻譯熱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日本이 保有하고 있는 高級翻譯陣의 莫強함을 示唆하기도 한다. 오늘날 그들은 그들의 막강한 經濟力에 힘입어 (이것은 또한 두터운 讀者層의 덕택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外畵는 거의 翻譯保有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다음은 우리 나라 大學에 있어서의 日本關係學科의 自體 分類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各學科들이 그들의 敎育 目標을 가장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現在 우리 나라 大學에서는 다음 네 개 種類의 日語關係學科가 있다.

- 가) 日本語科
- 나) 日本語敎育科
- 다) 日語日文學科
- 라) 日本學科

이들 學科들은 特色 있는 敎科課程이 運用되어야 할 것이나 現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 以外에도 生物學的 側面(人類學的 近遠關係)에 있어서의 지나친 親緣性(血液型的 出現比率, St 抗體遺傳因子의 同率出現, 피부색, 용모 등)도 덮고 넘어가야 할 因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 兩國間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作用要因들은 우리들이 大學에서 各 該當 日本語 關聯學科들이 그들의 敎科 課程案을 作成할 때 반드시 插入해야 할 恒·變數일 것이다.

上記 여러 恒·變數를 插入해서 풀어진 方程式의 概略的인 答値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것 같다.

“日本語란 우리로선 어디까지나 特殊外國語이며, 배우기는 比較的 쉬운 것 같으나 取扱하는 데 있어서는 細心한 注意를 要하는 外國語다.”

배우기 쉬운 것이다 하는 것은 前記 둘째 要因에서 나온 것 같으나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은 全 要因에서 抽出된 結果라고 하겠다. 兩國土가 200마일의 해협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 그리고

유렵처럼 隣近에 他群小國이 없다는 것 등과 관련된 첫째 요소는 항상 Near Race의 緊張을 要求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세번째의 要素는 注意 깊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항상 理性的 論理에 앞서 感情的 拒否反應이 休火山처럼 언제라도 噴出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高校敎壇에 설 교사를 양성하는 師大 日語敎育科에서는 더욱 慎重을 기해야 할 것이며, 初·中等校에서 이미 만들어진 對日 스테레오타이프와 一貫性을 지니게 하면서도 좀더 넓은 眼目을 심어 주는 데 注力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 우리는 日本語를 經濟的 내지는 文明的 側面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至當한 理論인 것이다. 사실 文明은 移植되어지나 文化는 잘 移植되지도 않으며 무조건 移植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다섯째의 요인은 대단히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日本은 그 經濟的 基盤과, 또 그 맹렬한 外國 知識에서 貪慾癖이 相乘作用을 일으켜 古今을 가리지 않고 世界의 古典格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書籍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새것으로 여겨지는 著述들은 빠짐없이 翻譯出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翻譯作品들이 世界의 定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日本語를 통하여 우리가 解得하지 못하는 많은 外國의 著作을 읽을 수 있다는 結論마저 나온다. 특히 制限된 時間으로 第2外國語를 習得해야 할 우리의 處地를 勘案할 때 “比較的 메우기 쉽다”란 利點과 翻譯書出版高가 世界一位란 理由로 日本語는 當분간은 有利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는 第2外國語로 머물게 될 것 같다.

여섯째로 各大學의 日本語 關聯學科는 제각기 學科 特徵을 충분히 自體檢討하여 가장 合理的인 새 敎科課程을 작성 도입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 IV. 현행 日本語 關聯學科의 敎科課程

아래 表 2는 우리 나라 人文系 大學(日語日文學科) 및 師範系 大學(日語敎育科)의 現行 敎科

課程을 概略·整理한 것이다.<sup>3)</sup>

〈表 2〉 日語敎育科 및 日語日文學科의 敎科別 學點構成比 (단위는 % ; 學點비율)

講 座 系 列	日語敎育科	日語日文學科	비 고
日 語 會 話	6.9	8.5	師大·日文學特講, 人文大·日文學개론
日 語 實 習	2.9	5.2	
綜 合 日 本 語	1.1	0.3	
日 作 文	7.8	7.5	
日 文 法	7.6	7.6	
日 講 讀	13.4	6.9	
日 音 聲 學	2.8	1.7	
日 語 史	1.1	1.5	
日 本 語 概 論	4.5	5.4	
日 文 學 特 講	7.3	7.2	
日 小 說	6.2	15.5	
日 古 典	3.4	5.0	
日 戲 曲	1.7	1.4	
日 現 代 詩	4.0	2.7	
日 詩 歌	1.8	1.2	
日 隨 筆	1.7	2.0	
日 文 學 史	5.6	4.2	
日 漢 文	4.9	3.4	
日 文 化 史	6.0	12.2	
實用 및 時事日語	6.0	5.2	
日語敎授法	3.2	1.5	
其 他			
계	100.0	100.0	

上記表는 講座目録 筆者 任意로 統合한 것도 있고, 各 要覽의 出版年度에 약간의 差跌이 있어 計數의 正確性을 기할 수는 없었으나 概略的인 傾向을 알아보는 데는 큰 支障이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

表 2를 다시 大分類하면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日語敎育科 및 日語日文學科 敎科構成比

大分類	日語敎育科	日語日文學科	비 고
I 日語熟練	32.7	28.5	會話, 作文, 講讀, 綜合日語 등
II 語 學	16.1	17.9	日文法, 音聲學, 日語學特講 등
III 文 學	36.2	34.6	現代文學, 古典文學, 日漢文 등
IV 其 他	15.1	19.1	日文化史, 時事日語, 韓國關係論, 日敎授法

(단위는 % ; 學點 비율)

表 3의 I과 IV에 留意할 때, 筆者는 師大系와 人文大系の 學點 할당이 완전히 轉倒되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얼핏 생각하면 I의 비율은 妥當하게 느껴질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高等學生들에게 日語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生活日語단을 익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讀解력이 약한 生活日語는 자칫하면 하우스보이의 外國語 解得者를 만들어 우리가 이미 危懼해 온 文化的 從屬輩들의 遺産에 이어질 可能性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外國語나 外國學의 研究에 있어서 當該國 文化的 長點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무턱대고 機械的으로 搬入한 나머지 文化的 衝突 내지는 從屬의 滯症을 일으키고 있는 現象을 經驗하고 있다. 즉 大量의 물고기의 搬入보다는 낚시도구의 搬入이 더 낫고, 그것보다 또 더 나은 것은 물고기 낚는 요령 즉 기술의 搬入일 것이다. 外國文明의 搬入에 있어서 우리는 그 文明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힘에 관심을 쏟아야지 그 文明을 그대로 무조건 搬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Greece 文化的 遺産은 廢墟로서 Greece 半島에 남아 있으나 그 文化를 밑에서 받쳐 온 Potential은 유럽大陸에 移徙되어 그 후의 유럽의 榮光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특히 制限되어 있는 時間과 學生들의 一般의 인 能力을 勘案할 때, 特別한 職種에 從事할 少數를 除外하고는 第2外國語는 어디까지나 生活語로서보다 讀解語로서 活用될 수 있도록 方向設定을 해야 할 것이다.

日本語의 경우는 이 主張이 더욱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日本語를 쓸 때와 읽을 때의 야릇한 感情의 差異는 옆에 서서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에게도 同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感情의 次元이겠지만, 사실 實質의 인 點에 있어서도 우리가 留意해야 할 점이 많다.

日本語의 讀解는 難澁한 文學作品을 除外하곤 漢字와 同一語順에 힘입어 獨語·佛語에 비해서 讀解가 쉬운 편이다. 이미 前章에서 論及한 다섯번째의 變數, 즉 오늘날의 日本이 保有하는 방대한 出版力은 당분간 東南亞 知性人的 要求

를 充足하는 데 큰 役割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讀解爲主의 日語教育은 輕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表 3의 IV의 경우도 日本文化 概觀이나 韓國關係論이 師大系 日語教育科엔 더욱 많이 開設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모든 講座日은 「韓國」이란 接頭辭가 붙어야 할 것이다. 이룬다면 「韓日關係論」「韓日文化比較論」「日本 속의 韓國文化」「韓國 속의 日本」「韓日比較音聲學」등이다. 그리고 師大 日語教育科 學生들은 副專攻으로 반드시 國語나 國史를 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表 2의 其他欄에서 「韓日關係論」은 1개교에서 단 開設되고 있었던 것을 附記한다.

高校 日本語教師는 자라나는 世代에게 日本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를 定着시키는 데에 있어 가장 影響力이 큰 關與者가 된다. 어쨌든 大學에서는 初·中等校에서 형성된 對日스테레오타이프와의 一貫性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층 깊어 있고 正確한 日本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 V. 獨逸 Gießen 大學의 教科課程

獨逸 Gießen 大學의 佛語佛文學教育科(Seminar für Didaktischer Frangösischen Sprache und Literatur)의 저울 및 여름학기에 걸친 教科課程을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韓日關係를 그대로 獨·佛關係에 比喩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몇몇 側面에서는 적지 않은 共通係數를 갖고 있다는 것을 是認해야 할 것이다. 이 教科課程에서 자발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兩國이 相互理解를 위한 끈질긴 努力을 여러 側面에서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紙面事情으로 全教科課程表를 게재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우리에게 興味를 자아내는 것을 뽑아 내어 간단하게 檢討해 보기로 한다.

- Vorlesung에서의 「地誌教育理論」
- Proseminar에서의 「外國語教育內容의 問題點」「中等教育에 있어서의 프랑스 상층」「佛政黨史에 대한 연습」「프랑스學의 主題로서 의 民族和解와 遺傳的 敵對性的 理解」「佛國 社會 經濟의 側面」
- Seminar에서의 「言語學과 教授法의 問題로

서의 佛語의 最少文法」 「地誌教育을 위한 教育材料作成」 「Germanism과 Faux Amis」 「外國語教育에 있어서의 놀이」 「地誌教授法 seminar」

- Sprach-Praktische Übungen에서의 「Explication de textes」 「佛語·獨語 翻譯」 「言語 實習을 위한 演劇」

Gießen 大學의 教科課程을 專攻分野別로 分類하여 그 學點比率를 산출하면 ‘教科教育 21%’, ‘語學 16%’, ‘文學 4%’, ‘地誌 5%’로 된다. 이것은 우리 師大日語教育科에 있어서의 ‘語學 49%’ ‘文學 36%’에 비할 때 顯隔한 對照를 이룬다. 上記 講座 이외에도 「中等學校 佛語教育에 있어서의 練習形態」 「中等學校 佛語教育에 있어서의 授業結果評價」 「中等學校 佛語教育에 있어서의 教材處理 可能性」 등이 있어 中等學校 教育과의 連繫性 確保에 注力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師大 日語教育科 중 「日語 教材研究」의 講座目을 가진 大學은 '82年 現在 1개교였다.

上記 Gießen大學의 講座目 中 「프랑스學의 主題로서 民族和解와 遺傳의 敵對性의 理解」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을 주는 것 중의 하나이다. 또한 同教科課程 中 翻譯關係 講座目에 많은 時間이 割愛되어 있었다. 第2外國語는 生活 속에서보다 書籍 속에서 더욱 그 機能을 發揮한다고 본다. 물론 各 外國語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특히 日本語를 대할 때는 그것을 實感케 된다. 우리가 배우는 第2外國語는 그 外國人과 皮膚로 부딪치는 경우보다는 書籍으로 부딪치는 일이 훨씬 많을 것으로 豫想되는 것이다. 移民 間 사람들이 그 移民國에 빨리 同化하기 위하여 배우는 것과는 달리 그 外國語를 書籍을 통하여 讀解하고 國家利益에 連繫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日本語는 말하기, 듣기, 쓰기보다는 讀解에 보다 有利한 共通因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 Ⅵ. 師大 日語教育科의 教科課程 試案

지금까지 考察·檢討한 結果를 토대로 하여 模型教科課程(師大 日語教育科를 위한)을 제시

하기로 한다.

文教部가 昨년 研究報告書 中 “外的으로는 社會 속의 大學으로 改革하고, 內的으로는 各種 非效率的인 要素를 찾아 이를 改善함으로써 大學 教育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며, 彈力性 있는 自律規制로 轉換한다.”<sup>4)</sup>의 基本精神과 이미 前章에서 記述한, 日本語가 지니고 있는 各種 特殊因

〈表 4〉 模型教科課程의 分野別 開設科目

分 野	專攻必須		專攻選擇		計		比率 (%)
	科目數	學點數	科目數	學點數	科目數	學點數	
가. 日語·日語學	4	12	8	24	12	36	55
나. 日文學			3	9	3	9	14
다. 日文化			4	12	4	12	17
라. 教科教育	3	9			3	9	14
	7	21	15	45	22	66	100

〈表 5〉 日語教育科의 模型 教科課程

\*표는 필수 科目

分 野	科 目	學點—講義—實習
日語·日語學	日語會話 및 實習*	3-0-1
	韓·日 文法 比較*	3-3-0
	韓·日 文體 比較	3-3-0
	韓·日語音聲·音韻比較	3-3-1
	日文法(Ⅰ)(口語)	3-3-0
	日文法(Ⅱ)(文語)	3-3-0
	日語史	3-3-0
	日作文(Ⅰ)(初·中級)	3-3-1
	日作文(Ⅱ)(高級)	3-3-1
	言語學入門	3-3-0
日文學	日語學概論	3-3-0
	日現代文	3-3-0
	日古典文	3-3-0
日文化	日常用漢字研究	3-3-1
	韓日 關係論 Ⅰ*	3-3-0
	日本 속의 韓國文化	3-3-0
	日文化 概論	3-3-0
教科教育學	韓日關係論 Ⅱ	3-3-0
	高校日語教材研究*	3-3-1
	日語教育論	3-2-2
	日語教育評價論	3-2-2
計		22
		76

자들(이 중엔 恒數의인 것도 있고 變數의 性格을 가진 것도 있음)을 導入하여 表 4, 表 5와 같은 師大 日語教育科를 위한 模型課程을 試圖한 것이다.

## Ⅷ. 結 論

外國語教育이란 것도 時代變遷이란 變數를 배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交通이나 通信網의 發達을 감안한다면 地球의 크기는 相對적으로 크게 變했고, 100年前을 수박크기에 비한다면 오늘날은 사과 크기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나 할까! 결과적으로 地球村이란 말이 생기고 이에 따라 外國語教育에 있어서 方法이나 目標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現實情이다.

이른테면 明治以後의 日本에 있어서의 英語教育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절름발이를 養成해 왔다고 오늘날 비난을 듣고 있지만 結果적으로 “和魂洋才”란 所期의 目標을 達成하는 데 成功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第1外國語인 英語를 教育하는데 있어서 그 같은 方法을 固執한다면 世人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거의 世界語化되어 버린 英語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讀解)가 고루 習得되어야 한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第2外國語의 경우는 어떠할까. 第2外國語에 許容되는 時間은 크게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第1外國語를 習得하고 난 후의 餘力이 活用된다는 점을 勘案해야 한다. 그러므로 第2外國語는 該當 國家와 우리 나라의 여러 側面에 있어서의 相互關係係數를 충분히 檢討 分析하여 가장 經濟的이고 合理的인 教育計劃을 세

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外國語는 어디까지나 道具學問이란 事實이다. 그러므로 그 機能을 다하려면 道具로서 쓸 수 있는 最低水準까지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高校에서 第2外國語를 必須로 하는 이상 所期의 目的을 반드시 達成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할 때 日帝가 우리 江土에 남긴 흔적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50代 以上の 연령층에서 日本語를 驅使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事實일 것이다. 이들은 또한 戰後의 混亂期를 克服하고 오늘의 民族的 繁榮의 발돋움에 적극 參與한 분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事實이 우리들에게 日本語를 “배우기는 比較的 쉬운 것 같으나 取扱하기 어렵다”란 印象을 남겨 하였고, 나아가서는 日曆을 읽고 있고 있는 사람과 日語를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感情反射가 동일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師大系 日語教育科는 學校日語教師를 養成하는 곳인 만큼 그 教科課程作成에는 慎重을 기해야 할 것이다. \*

## <註>

- 1) 韓國日本學會, 日本學叢, vol 4, 1979, p. 152.
- 2) 韓國日語日文學會, 日本語教師指針書, 1981, pp. 1-2.
- 3) 師大系列은 慶尙大, 全南大, 建國大, 慶南大, 啓明大, 嶺南大, 四光大의 學校要覽에서, 人文大系列은 釜山大, 濟州大, 啓明大, 東國大, 大邱大, 誠信女大, 仁荷大, 韓國外國語大, 漢陽大, 清州大의 學校要覽에서.
- 4) 文教部, 大學教育課程改善에 관한 研究, 1980, p. 192.